| 해양수산부 | 보 도 자 료 |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
| | 배 포 일 | 2021. 9. 2.(목)<br>총 3매(본문 2, 참고 1) | |
| 담당 부서 | 선원정책과 | 담 당 자 | • 과장 김석훈, 사무관 윤현석, 주무관 김익균<br>• ☎ (044)200-5740, 5741, 5748 |
| 보 도 일 시 | | 2021년 9월 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통신·방송·인터넷은 9. 2.(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

# 2021년 제3회 해기사 정기시험 시행

## - 응시자 간 거리두기, 사전방역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 이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4일(토) 전국 12개 시·도에서 2021년도 '제3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시험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총 1만 2천여 명이 응시한 해기사 정기시험 2차례와 상시시험 20차례를 안전하게 치른 바 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 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목포, 마산 등 전국 12개 지역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천 2백여 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키고 방역거리 최소 1.5m를 확보하여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또한, 안전한 시험 진행을 목표로 사전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안내 및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응시를 제한하고, 시험 전일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아울러, 시험 당일 현장에서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응시생도 응시가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 중 마스크 착용, 시험 전·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내 방역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12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시험장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관련 특이상황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소방서와 협력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기사 시험은 선원의 직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12개 시·도 및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운영해 나가겠다.”라며,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3회 해기사 정기시험 시행 후에도 올해 중 3천여 명 규모의 정기시험을 1차례, 2백여 명 규모의 소규모 상시 시험을 10차례 더 시행할 계획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 사진**

입장 전 발열체크

방역소독

시험응시

시험응시